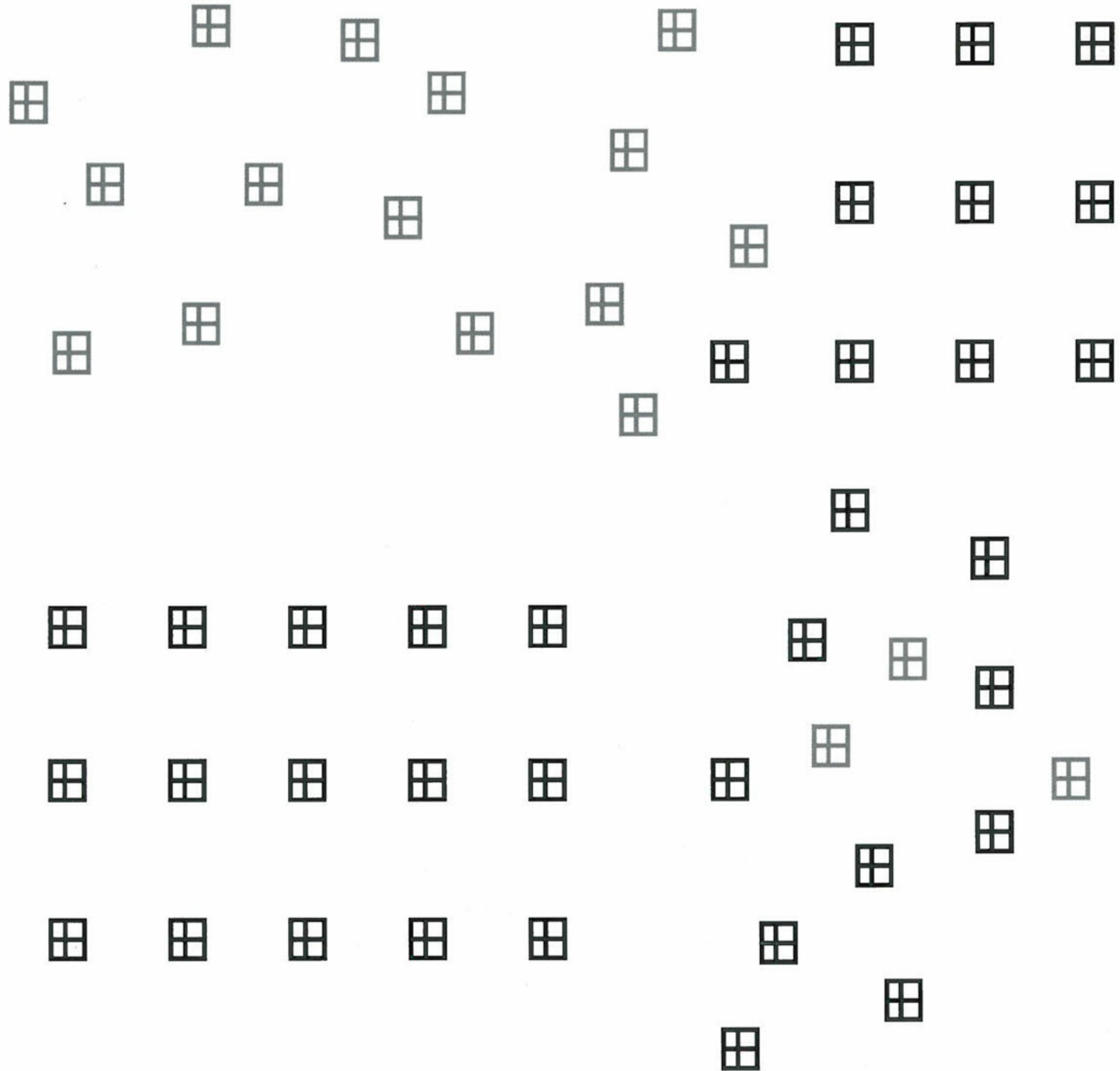


# ASIANA

culture, style, view

Monthly In-flight Magazine  
January 2015



**AIRLINE**  
of  
**THE YEAR**

**Five-Time Winner**  
2012 Business Traveler\*  
2012 Premier Traveler  
2011 Global Traveler  
2010 SKYTRAX  
2009 ATW  
(\*Best Overall Airline in the World)

**ASIANA AIRLINES**   
A STAR ALLIANCE MEMBER 

# A Humble Rectangle

text by Han Yeah-Joon

## Hong Seung-Hye

It's only natural that things created by human hands take on a vitality of their own. But why do we see humanity in the works of Hong Seung-Hye, which are produced using a computer?

**Perhaps it's because you take the minimal unit of a computer image — the pixel — as a motif, but somehow the word "departure" seems well suited to your works.**

**H (Hong Seung-Hye)** My work began by piling up pixels like bricks on blank paper, but at some point it seemed to take on a variety of aspects. A new departure is only possible if you have the courage to give up what is there already. In my 2008 solo exhibition «Debris» I dismantled all the motifs of my past work and reassembled them in a new form. Since then, I seem to have gained the courage to destroy things more easily. A new departure means hope and expectation.

**Why do you concentrate on geometrical forms, especially rectangles?**

**H** A rectangle is a functional form that is easy to repeat and pile up, and easy to put things in. Our living environment is mainly formed around the motif of the rectangle. A rectangle performs its function quietly, without asserting itself. I think the qualities of that frame came together with the direction I was heading in. My interest as an artist is not in telling a particular story, but in creating a vessel to put stories in.

**What is the concept of the "optimization of space" that you've advocated?**

**H** When they see a frame, most people are only interested in the picture inside it. I think it's equally important to consider where the picture is placed and how, because, through a kind of chemical reaction with the space, it can appear as a completely different object. The "optimization of space" that I aim for is a condition in which artistic invention

functions in perfect co-existence with space. In my case, I'd like to think that the space in which a work is placed is itself a part of my work.

**Do you have any personal know-how for coordinating those two contrasting things — digital technology and human feeling?**

**H** Because my works are made by machines, they have inescapable strict forms. For that reason, intuition and quick thinking play an important role. Personally, I readily accept and permit the many different things that can happen on the monitor grid. Perhaps I should say that I easily accept mistakes, failures, accidents, and other unexpected outcomes. I'm like that in everyday life, too. If you think everything is all right, it becomes easier to make softer relationships in the worl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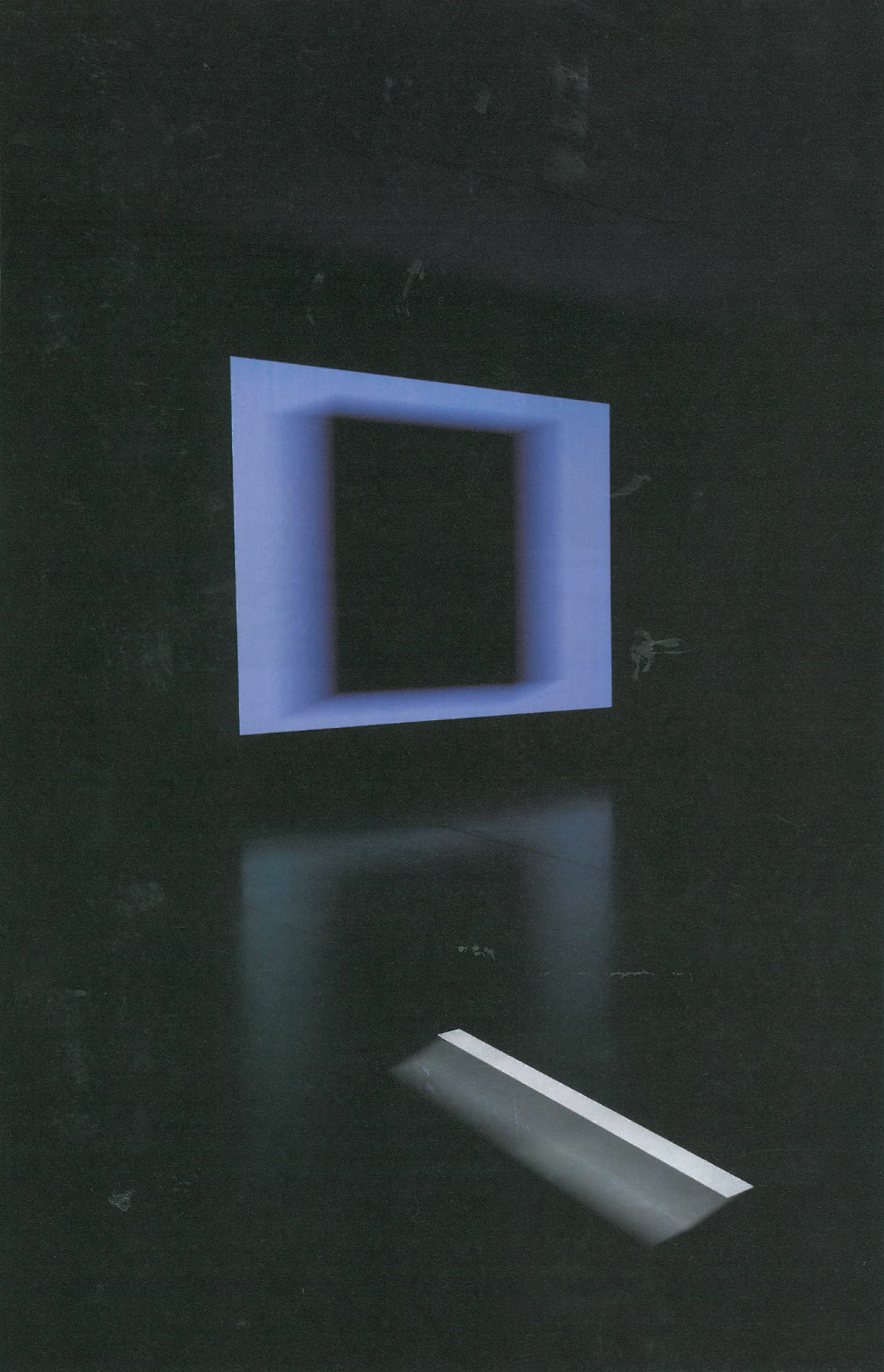
**Clarity, simplicity, and the freedom of chance are things that viewers can sense in your works. From your own point of view, what do you aim to express?**

**H** The clarity, simplicity, and freedom that you mentioned are just the things I want to express. If you see those things in my works, I think I have succeeded. You could also say that these things are part of my philosophy of life. The organic geometry of living things, which takes so many different forms, is my closest friend and my other sel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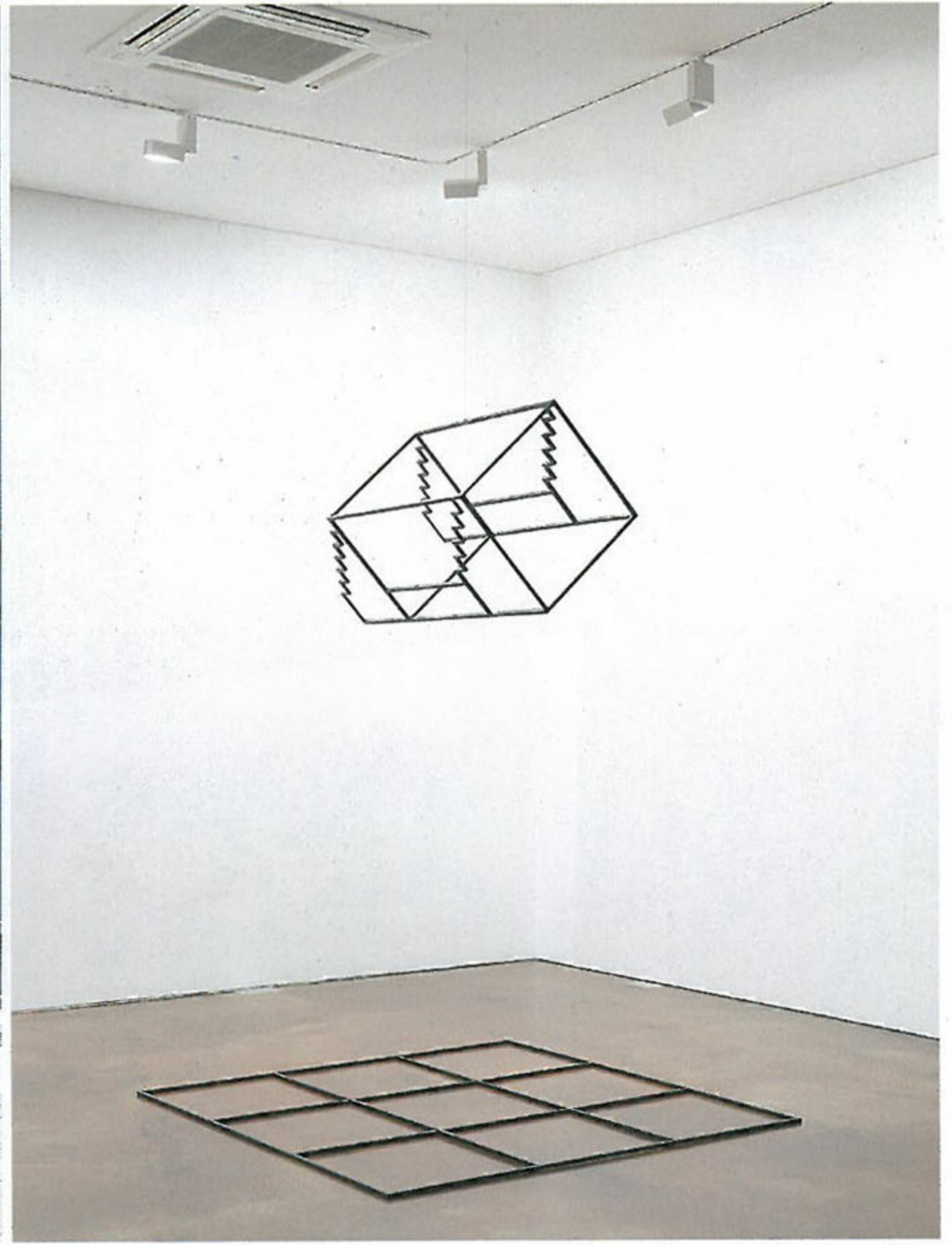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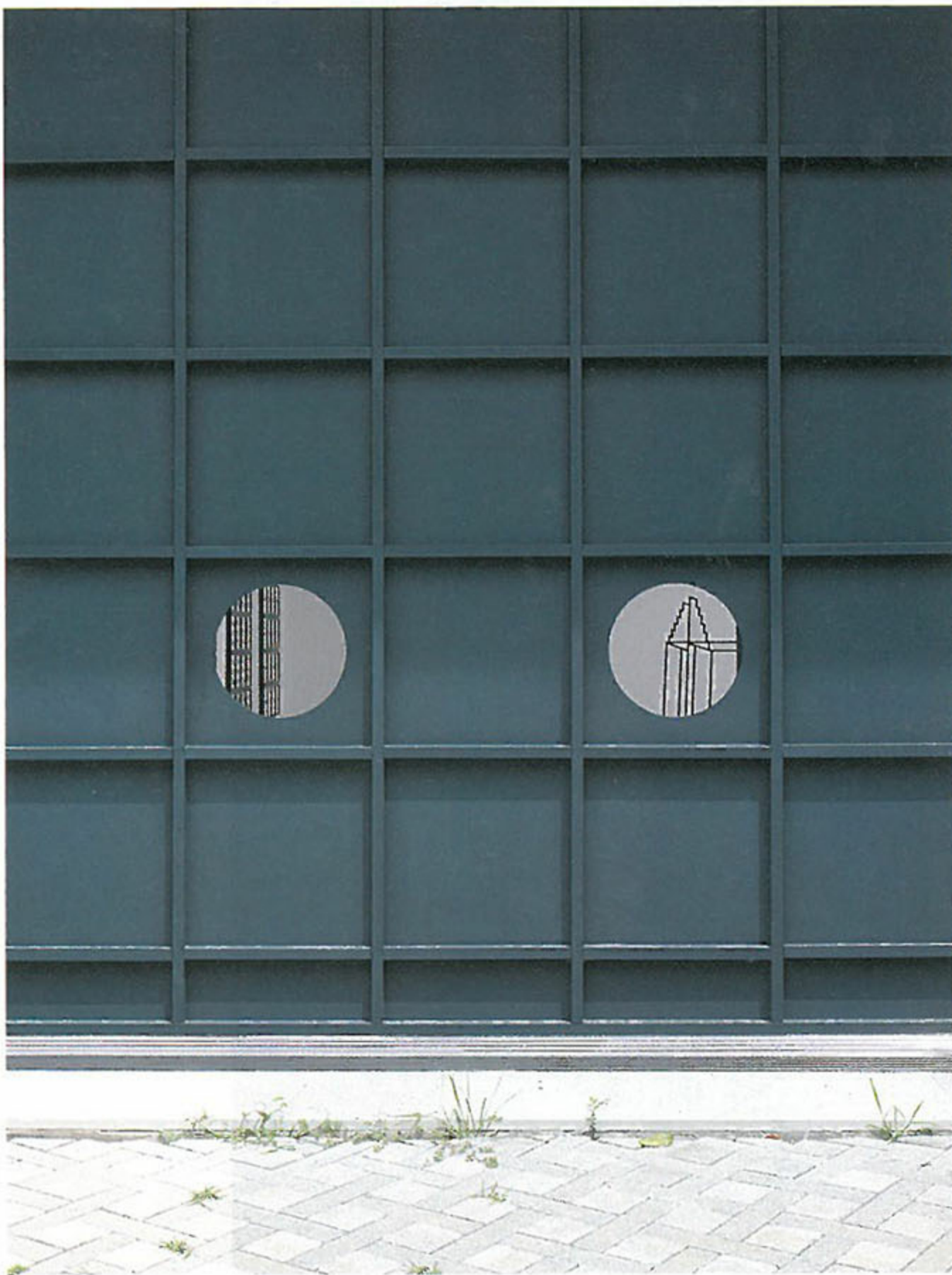
**Your 2014 solo exhibition «Reminiscence» was notable for the way you moved on from sculpture and installation art to include video media. What is the attraction of video art that's different from static images and sculptures?**

**H** The qualities of "organic geometry" seem to be maximized in video. Where there is movement, there is life. Through rectangles dancing in time to music, the course of emotion can be shown more clearly, and the work seems to have a magnetism that is different from static images or sculptures. In this, music plays a decisive role. I'm always thinking about adopting various media, but ultimately, I believe abstract art can be in the spotlight when they get down to everyday life. ●

Artist Hong Seung-Hye (born in Seoul, 1959) graduated with degrees in Art from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the National School of Art in Paris. Since 1997, she has been exhibiting works created using industrial production methods and digital computer technology. She currently teache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Hong Seung-  
Hye, View of  
the exhibition  
«Reminiscence»,  
Kukje Gallery,  
Seoul, Korea,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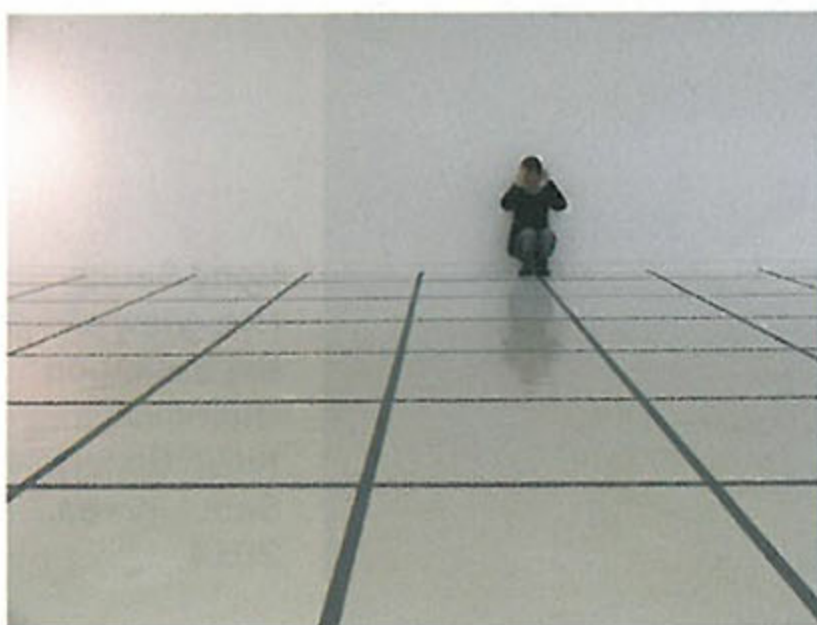


## 표지 작가 홍승혜의 겸손한 네모

사람이 손으로 만든 창작물에는  
특유의 생명력이 깃들어 있다.  
그런데 왜일까?

컴퓨터를 이용해 만드는 홍승혜의 작품에서도  
'사람'이 보이는 건.

글. 한예준



컴퓨터 이미지의 최소 단위인 픽셀을 모티브로 했기 때문인지 선생님의  
작품에는 '출발'이라는 단어가 잘 어울리는 듯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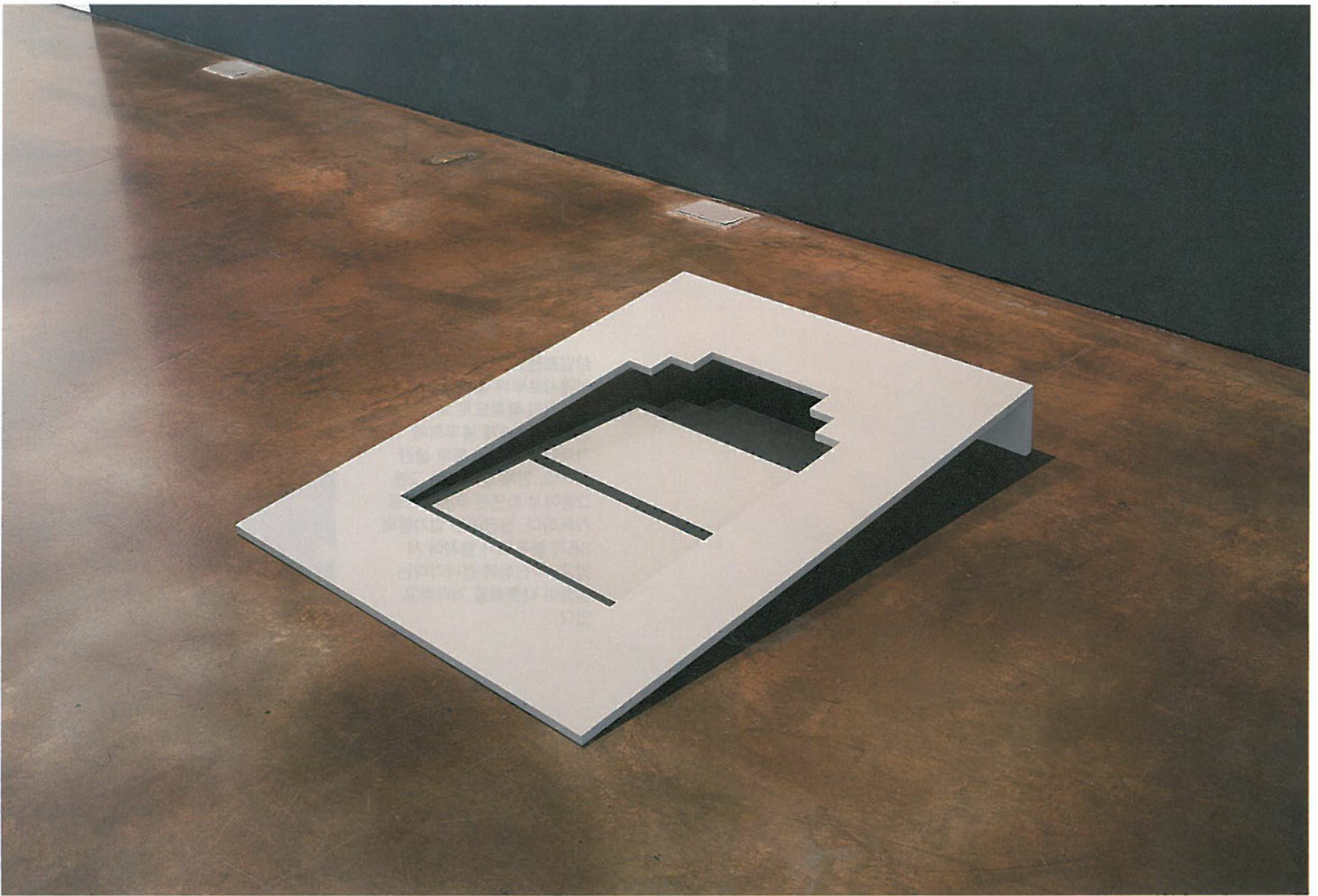
백지에 픽셀을 벽돌처럼 쌓으며 시작한 작업이 어느덧 다양한 면모를  
갖추게 된 것 같습니다. 새로운 출발은 기존의 것을 과감하게 포기할 때  
가능합니다. 2008년 개인전 '파편(Debris)'은 과거 작업의 모티브를 모두  
분해해 재조성하는 작업이었습니다. 그 이후 보다 쉽게 파괴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된 것 같습니다. 새로운 출발은 곧 희망과 기대입니다.

기하학적 형태, 특히 사각형에 천착하는 이유가 있나요?

우리의 주거 환경은 대부분 사각형을 모티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각형은 반복해서 쌓기도 쉽고 뭔가를 담기도 쉬운 기능적인 형태입니다.  
자신을 강변하지 않고 묵묵히 제 역할을 합니다. 그 프레임의 본질이 나의  
지향점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술가로서 나의 관심은 어떤  
이야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드는  
것입니다. 기하학적 환경이 나에게 프레임이고, 얼마나 효율적이고  
아름다운 프레임을 만드느냐가 나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선생님이 주장해온 '공간의 최적화'란 어떤 개념인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액자가 있으면 그 안에 있는 그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1 2 | 4  
3

1. Two holes which connected the inside and outside of the exhibition space «Reminiscence», Kukje Gallery, Seoul, 2014
- 2, 4. Hong Seung-Hye, View of the exhibition «Reminiscence», Kukje Gallery, Seoul, 2014, Photo by Kim Sang-Tae
3. The Artist Hong Seung-Hye and “Grid for Furniture Arrangement” Sticker on floor «On & Off», Chosunilbo Gallery, Seoul, 2008

나는 그것이 어디에 어떻게 놓이느냐가 동일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간과의 화학작용을 통해 전혀 다른 물건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죠. 내가 구현하고자 하는 공간의 최적화란 미술적 개입이 공간과 완벽하게 공존하며 기능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제 경우에는 작품이 놓인 공간 자체가 나의 작업이라고 봐도 좋습니다.

**디지털 기술과 인간의 감성, 이 상반된 두 가지를 동시에 운용하기 위한 자신만의 노하우가 있나요?**

나의 작품에는 기계가 만들기 때문에 벗어날 수 없는 엄격한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직관과 순발력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 나는 모니터의 그리드 위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을 쉽게 용서하고 허락하는 편이에요. 실수나 실패, 우연 등 예상과 다른 결과물을 쉽게 받아들인다고나 할까요? 새옹지마(塞翁之馬)라는 고사성어도 있잖아요. 그렇게 살다 보면 세상과 보다 부드러운 관계를 맺게 되는 것 같습니다.

**명쾌함, 단순함, 우연성에 의한 자유로움. 선생님의 작품에서 관객이 받는 느낌입니다. 정작 본인은 작품을 통해 무엇을 표현하고 싶은지요?**

말씀하신 명쾌함, 단순함, 자유로움이 곧 제가 표현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을 봐주셨다니 작업에 성공한 것 같네요. 이것들은 제 삶의 가치관이라

해도 좋습니다. 무한한 경우의 수를 지닌 생명체로서의 ‘유기적 기하학’은 어찌 보면 제 절친한 친구이자 또 다른 자아라 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작업을 모아 그 방법론들을 뒤섞은 2014년의 개인전**

‘회상(Reminiscence)’에서는 조각과 설치에 이어 영상 매체로의 확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평면이나 조각과 다른 영상 작업의 매력은 무엇인가요?

‘유기적 기하학’의 성격이 극대화된 것이 영상인 것 같습니다. ‘움직인다는 것은 살아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죠.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사각형들을 통해 감정의 행보가 훨씬 구체적으로 드러나다 보니, 정적인 평면이나 조각과는 다른 흡인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음악의 역할은 결정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작업의 방향성이 궁금합니다.**

계속해서 확산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매체를 포용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끊임없이 하고 있어요. 그러나 추상 미술이 가장 빛을 발하는 곳, 그 끝은 언제나 삶의 실제 무대라고 생각합니다. ●

작가 홍승혜(1959년생, 서울)는 서울대학교 회화과를 졸업하고, 파리 국립미술학교 회화부를 졸업했다. 1997년 이후로 공업적 제작 방식과 컴퓨터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현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다.